

■ 교육일정

차수	교육일자	인원	수강대상자
1	2000년 10월 18일	50명	밀봉선원 사용기관에 근무하는 자
2	10월 19일	50명	개봉선원 사용기관 "
3	11월 27일	50명	밀봉선원 사용기관 "
4	11월 28일	50명	개봉선원 사용기관 "
5	12월 7일	50명	밀봉선원 사용기관 "

■ 교육신청방법

-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취업선원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되오니 희망하는 일정을 택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취업예정자등 기타 교육수강 희망자도 같은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희망 일정을 정하여 교육 실시 20일전까지 보수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비는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원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 30,000원

2. 납부방법 : 납입처 • 한빛은행(833-076021-13-001, 예금주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3. 숙지사항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개발팀(담당:김건욱)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일자와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 02-3411-9261~2, Fax : 02-445-2173, Home-page : WWW. ri. or. kr

신문속의 RI뉴스

“국내 핵의학계 제2도약 계기로”

이명철(李明哲) 서울의대 교수(핵의학과)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핵의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우리 핵의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일학회의 세계학회장으로 우리나라 의학자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국내 핵의학회 회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공

을 우리 핵의학 회원들에게 돌렸다. 올해 미국에서 열린 핵의학회에 발표된 논문만 해도 80편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이 4번째이다. 그만큼 우리 핵의학 연구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핵의학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200명, 준회원 150명 정도로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차기 핵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핵의학계가 제2의 도약을 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의학회 회장으로서 개발국가의 핵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사능을 띠는 동위원소로 주사를 놓거나 진단하는 핵의학은 국내의학계 내에서도 특수분야로 손꼽힌다. 그 때문에 핵의학회가 결성된지는 내년으로 40주년을 맞이하지만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핵의학은 갑상선암이나 혈액암 등 각종 암 치료와 관절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연구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기간인 2002~2006년은 국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핵의학 발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대한매일 2000/09/18 23면〉

과기부 原電 관련부서 증원 추진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부서 신설과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부도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련부서 신설을 추진중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부는 원자력국에 방사선 비상대책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안전문제를 전담할 통제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인원 8명으로 구성될 통제과는 한국전력·원자력안전연구원과 연계된 원자력 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실시간 감시체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내 원자력 관련 조직과 인력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지난 2년사이 원자력실이 국으로 바뀌면서 7개과가 4개과로 줄어 인원도 82명에서 55명으로 감축됐다.

〈대한매일 2000/09/14 31면〉

원자력안전의 날 유공자 포상

제6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이 6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서정욱(徐廷旭)과학기술부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원자력 안전의식 확산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36명과 1개 단체에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이 주어졌다.

동탑산업훈장은 원전 주요 기기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원전의 안전시공에 기여한 한국중공

업 김태우(金泰宇 · 53)상무이사가 받았다. 또 첨단 방사능 방재대책기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권석근(權奭根 · 56)방사선안전센터장과 방사선보건연구센터 발족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심홍기(沈洪基 · 53)원자력안전처장에게는 각각 산업포장이 수여됐다. 주요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표창(단체)=사단법인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대통령표창(개인)=한전기공 유민준사업본부장, 한전고리2발전소 강호원부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배구현규제분석실장 ▽국무총리표창=한국전력기술 안홍선수석기술원, 대우건설 유홍규부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창범책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김정수책임연구원, 과학기술부 경상봉전기주사
 〈동아일보 2000/09/07 23면〉

JCO, 방사능 피해자에 1300억원 배상

우라늄 재처리 기업인 JCO는 지난해 9월30일 발생한 일본 도카이무라(東海村) 핵재처리 공장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6875건의 소송에서 모두 126억6000만엔(약 1300억원)을 배상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JCO의 스즈키 카쓰노리 대변인은 아직도 150건의 소송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아같이 말했으나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합의된 배상액수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뿐 아니라 농어민과 서비스업체가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도쿄 북동쪽 110km 지점에 위치한 도카이무라의 우라늄 재처리공장에서 당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스즈키 대변인은 JCO는 보험금 10억엔과 모회사인 스미토모 금속광업의 지원금 등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2000/09/06 10면〉

영광 “송이도” 주민들 “핵처리장 지어주오”

산업자원부가 지난 6월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 공모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나섰다. 송이도 어촌계장 김성기씨(56) 등 주민 101명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희망서를 산자부를 비롯해 전남도와 영광군·군의회, 한국전력, 영광원전 등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은 유치 희망서를 통해 “최근 갈수록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발농 사마저 토질이 나빠 잘 안되는 바람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로운 삶의 길을 찾기 위한 결정이므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이도는 속칭 서

해 칠산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영광원전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난 98년 12월에도 방사능 폐기물 시설 유치를 관계기관에 희망했다. 그러나 영광군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반핵 단체와 상당수 주민들이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향후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신청 요건에 규정돼 있다”며 “영광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 6월말 60만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해 2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면서 폐기물 처리 부지 공모에 나섰다.

〈국민일보 2000/08/17 21면〉

해외과학기술동향

비행기내 승객간 방사선 피폭 양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

자연 방사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연 방사능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방사능으로 피폭량은 방사선원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같은 방사선원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비행기 승무원이나 승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주방사선은 물체를 너무 잘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 어디에 있어도 피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비행기 승객들이 받는 우주방사선 피폭 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 고도를 낮추거나 비행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여행할 경우 받는 방사선량은 수십 μSv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x-선 촬영시 보통 150-200 μSv 의 방사선에 피폭된다. 초음속 비행기로 여행하나 음속이하로 여행하나 피폭량은 비슷하는데, 이는 초음속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 단위 시간당 받는 방사선의 양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방사선보호 위원회의 고시자료 211번에 따르면 승객 자신이 방사선 방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복도 쪽에 앉은 승객이 창가에 앉은 승객보다 방사선을 더 적게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승객간에 자리를 바꾸어 앉으면 승객간의 피폭 양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으나, 장시간 비행도중 승객을 깨우는 등의 번잡함으로 인해 피폭 양을 동일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 대안으로 이송장치를 통해 자리를 좌우나 상하로 바꾸게 할 수 있다. 좌석이 300개인 경우 45분만에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다. 물론 짧은 여행에서는 불필요하다. 식사나 음료 제공은 셀프서비스로 진행될 수 있어 승무원이나 복도가 필요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비행기 크기는 줄어들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한가지 설계 예인데, 실용주의자들은 비행도중 받는 방사선의 양이 지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 양보다 훨씬 적어 비행기내에서 승객간의 방사선 피폭 양을 동일시하기 위한 비행기 내부의 설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출처 : <http://www.indiaserver.com:80/thehindu/2000/08/17/stories/081700> : 2000년 08월 17일]